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1차 회의

-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 2023년 9월 22일(금) * 현장 회의 기준
- 장 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 추천위원 : 총 80명
- 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추천대상, 추천분과, 추천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학술부문 신청 내역 보고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종)
293	203	167	982	101	460	131	99	197	263	2,896

- 세종도서 학술부문 회의방법, 추천기준 등 안내
- 세종도서 학술부문 1차 회의 및 추천도서 확정(527종)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종)
51	37	32	176	19	85	24	17	38	48	527

붙임 :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1차 회의 추천 총평. 끝.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1차 회의 추천 총평

○ 분 과 : 총류

○ 상정 도서들이 다룬 주제는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암호학, 파이썬, 알고리즘,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챗 GPT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인 4차 산업, 인공지능, 챗 GPT 이용 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용 방법과 응용을 제공하는 도서들이 있으며, 다수의 도서들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적 문제해결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도서들이 현대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실용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 최근 일반인에서부터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리터러시 기본 개념에서부터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이르는 고급 기술까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들을 포함한 내용으로 기획과 구성이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 등 인문학적 요소와 융합된 내용의 기획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사회에 데이터 처리 기술의 필요성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한글 대중화에 힘썼던 세종의 노력처럼 세종도서 추천의 기본 사업 취지와 일치하여 매우 의미 있는 추천 작업이었다.

○ 상정 도서들은 최근에 컴퓨터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최근 기술인 “메타러닝”이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다루는 도서가 상정되었으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대두되는 인공지능 윤리 분야 도서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분야 외에도 최근 컴퓨터 분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 및 데브옵스 분야 및 효과적인 코드 작성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해킹 사고를 다루는 보안 분야 등 다양한 분야들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

○ 상정 도서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 및 환경에 대해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의 편리성과 개발자의 관점, 방향에 대해 여러 갈래로 시도하고 있었다.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대한 저서와 사회의 변화에 연결 고리에 해당되는 기술, 편의성과 관리성을 고려하여 일반인과 전문성 개발 인력에 유용한 측면의 관점을 갖고 추천하고자 노력하였다.

○ 상정 도서들은 컴퓨터 및 총류의 학술 부분의 다양한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다. 총류 부문은 교양 및 개론서 수준의 다양한 학문적 관심사(죽음, 의료, 출판, 독서치료 등)를 담고 있는 도서들 중 완성도가 높은 책을 추천하였다. 컴퓨터 부문은 C++부터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다양한 IT 부문의 새로운 내용, 경향, 전공자 및 비전공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내용이 담고 있는 책으로 추천하고자 노력하였다.

○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1차 추천의 목적은 창작 활성화 유도를 통하여 출판산업의 성장을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1차 추천에서 총류(컴퓨터3/총류일반)에 상정된 도서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완성도 측면에서 높게 평가됩니다. 출판 도서들을 통하여 차세대의 초연결사회 환경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분 과 : 철학/심리학/윤리학

○ 주제 의식에 일관되게 저술한 책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였으며, 정치 철학이나 사상사(중국문학) 쪽에서도 개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동양철학 분야에서는 한국철학을 포함하여 현대한국의 문제를 다루는 서적도 평가하였는데, 단순한 철학만이 아닌 정치사상과 사상사(중국문학)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독창적인 주제로 상당한 업적을 낸 저서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였으며, 번역에서도 국내에 소개되어있지 않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였음.

○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저작이 적었고 여전히 번역서의 비중이 높다는 아쉬움이 있다. 긴 호흡에서의 연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연구환경에서도 독심 있게 자신만의 주제 의식으로 집필한 저서를 가려내려 노력했다. 무엇보다 우리 연구자들의 호흡이 담긴 저작을 중심으로 뽑으려 노력했다.

○ 상정 도서들은 다양한 철학자의 사상을 직접 연구하거나 그들의 주요 저서를 번역하거나 그들에 대한 연구서를 번역한 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연구가 소홀했던 영역이나 번역이 소개되지 않았던 저작에 접근하여 연구서나 번역본을 출간한 경우가 많은 점은 우리 학계의 연구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점이었다. 시대적으로는 고중세, 근대, 현대를 골고루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현대 영미 철학과 관련된 우수 저작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 상정 도서들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에 관한 관심과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사회구성원으로 잘 기능하기 위한 지침부터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역사에 대한 소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상정 도서들은 현대사회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이에 의한 혼란을 해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저술과 도덕에 관한 논의를 다룬 서적들은 우리의 삶을 윤곽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정된 도서에 번역서 비중이 특히 높아, 여전히 우리 학계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세계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위세를 떨치는 추세다. 출판계도 이런 위상에 맞는 다양한 저술과 저작을 출판하여, 한국인의 관점에서 학술과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다만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관점의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조만간 창의적이고 다양한 견해를 담은 출판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 분 과 : 종교

○ 상정 도서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최근 신학적 동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 분야는 기독교 원전을 바탕으로 한 주해, 신구약 성서 개론서, 선교 신학, 기독교 윤리 등이 골고루 배치되었고, 평소 접하지 못했던 저명한 외국 학자들의 번역서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학문의 지평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가장 먼저 학술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였다. 저자의 창의적인 주장이 어떻게 담겼는지 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가독성’을 고려하였다.

(2) 지나치게 좁은 주제보다는 많은 독자가 기대되는 도서를 높이 평가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술성이 충분한지 고려하였다.

(3)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학술서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만 추려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많은 양질의 책이 추천받지 못하였다. 특히 번역서들 중에 좋은 책들이 많았으나, 20% 제한으로 인해 충분히 추천할 수 없었다. 이 중에는 방대한 신약성서 주석서들이 많았다.

○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일차 자료로부터, 신약성서 주석, 공공 신학, 다문화 선교, 남 장로교의 여성 선교사들, 구약 성서의 이해, 독일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통한 신학 제언, 아시아 선교 신학, 예수와 바울의 인간학, 종교와 과학의 만남, 초기 유대교에 대한 묘사들, 에큐메니컬 신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주제를 파악하고 현대 한국 신학자들의 노력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저작의 학문성과 독창성, 그리고 학술 연구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추천하고 평가하려고 노력했다. 성서학과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학에 이르기까지 한국 신학자의 열정과 패기를 볼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독자들에게 좋은 서적들이 읽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본 분과에는 불교, 신종교, 종교학(종교일반, 비교종교학, 신화학) 분야 도서들이 배정되었는데, 불교 관련 도서가 많았으며, 약간의 신종교나 종교학 관련 도서가 있었다. 신종교 관련해서는 종단의 장벽을 넘어 비교종교학적 확장을 도모한 저술이 주목할 만했으며, 종교학(종교일반)에서는 생태와 평화라는 시의적절한 실천적 주제를 다룬 다수의 저술이 있어서 주목할 만했다. 불교 관련해서는 탄탄한 원전 역주, 초기 인도 불교와 전성기 중국 불교의 역사나 사상 관련 연구, 신라, 고려, 조선, 근대 초기의 불교 연구 등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다루는 풍부함이 돋보였다. 또한 불교 잡지, 조선 왕실 제작 후원 불상, 초기 비구니 승단, 신라 천축구법승들과 같이 참신한 소재의 연구들이 많았던 점도 주목할 만했다.

○ 불교와 관련하여서는 경전이나 문헌의 역주서를 비롯하여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사상을 해명하는 서적들과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그리고 한국불교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이 있었다. 한편 기타 종교의 영역에는 생태학적 문제를 다룬 서적, 애니미즘에 관련된 서적, 대순진리회 등의 사상에 대한 서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서적들이 있었다. 시의적절하고 현대적 의미를 가지는 서적들이 눈에 띄었고, 불교 명상의 방법을 현대인들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서적들도 인상 깊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서적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불교학 그리고 기타 종교학 분야에서 나오는 서적들이 기대되는 작업이었다.

○ 분 과 : 사회과학

○ 상정 도서들은 사회과학, 특히 경영 분야의 트렌드를 시의적절하게 다양성 있는 접근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ESG, 플랫폼 전략,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이해와 활용전략에 대하여 통찰력을 제공하는 도서들이 많았다. 또한 경영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과 교육에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실용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상정 도서들의 독창성이 두드러진다. AI 시대, 브랜딩, 고객관리 등 일반 경영 관련 이론이나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는 개념들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 관점과 나름대로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여 독창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여 자칫 고루하거나 철 지난 지침서가 되지 않도록 사례에 대한 강조점이 공통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적잖은 서적들이 대학 교재의 포맷(목차, 그림 등)을 채택하고 있어서, 가독성은 제고되었으나, 분량이 다소 방대하여 서적 가격이 다소 부담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 상정된 도서들은 경영학 분야에서 최근 관심이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4차 산업혁명, ESG, 스마트 팩토리, 마케팅, 서비스 경영, AI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었고, 이러한 도서들은 최근 이슈나 관심 사항들을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저자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돋보였고, 독자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성이나 편집도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경영학 분야의 도서들은 시의성이 높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경영학의 세부 분야에 대한 도서이더라도 융합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다. 기획의 시의성과 다양성 측면의 우수성에 비해, 독창성 측면에서는 향후 더 창의적인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천도서들은 전통적인 이론이나 개념을 다루고 있더라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내용을 추가한 점이 우수하다.

○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담긴 서적들이 추천되었다. 특히 AI, 미디어, 복잡계 등 연구자들의 전문 분야가 소개되어 추천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통계 관련 서적들이 다소 많이 추천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서적이 좀 더 추천되기를 바란다.

○ 전반적으로 R과 파이썬, 그리고 통계학 서적들이 많이 있어 최근 빅 데이터 처리와 활용이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 번역서가 많아 국내와 해외 간의 문제의식의 시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번역서가 아닌 순수한 저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 다소 아쉽다. 그리고 경제사와 성장에

관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사상에 대한 해석과 향후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관련 도서가 해외 번역서뿐만 아니라 국내 저서의 범위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빅 데이터 관련 책이 다소 나오고 있지만 이를 실제 현실에 접합한 학술서적이 출판되면 더욱더 학술 생태계가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상정된 도서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학자들의 고뇌와 열정이 담겨 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의 기술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도서들이 눈에 띄는 한편, 사회비판적 시각을 가진 서구권 학자들을 심도 있게 다룬 번역서와 연구물들이 다수 포함되기도 하였다. 학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소장 가치가 높은 책들과 함께, 대중적인 연구 분야는 아닐지라도 신진학자들의 열의가 담긴 저서들을 추천하고자 하였다.

○ 일반교육학 및 교과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저술들이다. 최근의 시대 변화를 반영한 논의 또는 지속적으로 논제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룬 논의도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저술자가 아니라면 연구하여 정리하기 어려운 내용을 저서로 엮어낸 저술은 귀감이 되었다. 도전적이고 참신하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저술을 중심으로 추천하였다.

○ 상정 도서들은 교육의 다양한 분야와 청소년, 상담 분야까지 폭넓은 분야의 관심 주제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교육 분야의 기본 이론인 교육학 개론이나 교과 교육, 교사 교육, 부모 교육과 관련된 저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상상, 인공지능, 메타버스 관련 주제, 그리고 우리나라 현 실정을 반영한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 디자인, 유아 놀이 중심 등 시의적절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책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이 다양한 도서 중 새롭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면서 학문적, 실천적 담론과 논의를 창출하는 도서를 추천하고자 노력하였다.

○ 본 회의에 추천된 도서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 교육 관점, 교육 접근의 실제, 이론 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재 성격의 저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향후에는 교재뿐 아니라 교육 분야의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학술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도서 저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이론보다 실제적 측면에서 조명하는 저술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교육학의 이론적인 기반이 확고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술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상정 도서들의 다수는 우리 사회의 기술적, 사회적 변화상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법이론적 해법을 제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 연구의 방법론적인 확대 또한 눈에 띄는데, 대표적 외국 문헌과 제도의 번역 소개, 법철학 및 역사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접근을 통해 법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시도들이 돋보였다. 이러한 다채로운 노력은 학술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해의 저변을 확대하고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리라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기여를 진작하는 데 본 지원 사업의 취지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도서를 추천하고자 하였다.

○ 주제의 선택이나 연구 방법 등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참신하고 내용 있는 책들이 다수 발견되어 법학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보수적인 법학도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본인 스스로도 연구에 자극을 느끼게 되었다.

○ 상정 도서들은 최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들이 많았다. 상당수의 책이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가상자산, 디지털전환 등 시대적 변화를 다루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과 제도를 다루고 있다. 연구서는 크게 제한적, 특수영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서와 다수의 저자가 참여하여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하는 연구서로 대별되는 것으로 두드러진 특색이었다. 이는 시대전환에 대응하여 법학의 노력이 거시적 시각을 강조하는 경향과 더불어 기술 발달에 따른 전문화된 영역을 세밀하게 탐구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추천에서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잘 보여주면서 앞으로 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책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한층 더 다양해지고 풍부한 저서와 역서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문명사적 복합위기를 반영하듯, 기후 위기와 재난, 질병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저서들이 눈에 띈다. 여기에 더해 꾸준히 고전 사회이론에 대한 저술과 번역서 역시 출간되고 있었으며, 글로벌한 한국인들의 이주자로서의 삶과 고민을 다루는 등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 현상과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도서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었다. 이들 모두를 추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 상정 도서들은 사회학 고전을 재해석하는 저서부터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을 다루는 저서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

리 사회의 모습과 문제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저서들이 많았다. 이 도서들 중, 현재 한국 사회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향후의 방향을 제시하는 저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분석을 겸비한 저서, 새롭고 창의적인 주제나 분석을 제시하는 저서 등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도서들 역시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접근법들을 이용한 저작들이 많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고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문명론적 시야를 갖춘 도서들이 많아지고, 방법론적으로는 구술사 방법이나 인터뷰 등을 활용해 개인들의 산 체험에 기초를 두려는 시도들이 계속 큰 경향을 이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특히 재외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를 다룬 저작이 유난히 많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한민족 공동체를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게 된다. 이런 연구와 출판의 흐름이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이 인류의 삶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 올해 추천한 도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천된 도서가 관련 전공자나 현장 실천가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권하고 싶다.

○ 올해의 상정 도서들은 최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빈곤, 차별, 다문화, 이민, 난민, 불평등의 이슈를 긴 호흡으로 연구하고 저술한 도서가 많으며,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더욱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 보려는 논의가 돋보였다. 관련 학과나 전공자들의 수업이나 토론 시간에 활용하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

○ 상정 도서들은 한국 민속학적 연구들과 문화적 접근의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특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지역이나 역사적 자료를 찾아 기록하고 분석하는 심층적 연구들이 다수 제출되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학술연구의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의 역사적 기억과 일상적 삶 및 전통을 구축하거나 재구성해 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한편, 현대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들의 이론적 사유와 체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심층적이고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인 이론서나 참신한 주제 연구를 소수지만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이 고무적이었다.

○ 현대문명과 지성을 진단할 수 있는 연구 경향과 전통사회와 문화유산을 관통하려는 성과들을 거듭 확인하였다. 특히 <문화> 연구는 질적연구를 담보하고 수

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언론>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수행되고 있었다.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에 매진하여 출간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모두가 빛난 업적이지만 순위에 따져야 하는 자리이기에 나름의 기준에 따라 추천하였다.

○ 상정 도서들은 최근 국제사회의 일련의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한 서적들이 대거 추천 대상이 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실용 학문에 대한 추세를 반영해주고 있다. 중국 관련 도서들이 좋은 예이며, 아시아의 등장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명하는 도서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행정학의 경우도 이론보다는 실천 분야 도서들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치학의 경우는 국제정치 분야 도서가 비중 있게 출간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향후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더 심도 있고, 본질을 다루는 도서들이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 상정 도서들은 정치학, 행정학 분야에서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주제들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서적들은 대부분 시의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있었고, 내용 면에서도 충실성과 완결성이 돋보였다. 집필 과정에서 저자들이 쏟은 정성과 노력들에 박수를 보내며 존경을 표한다. 이번 상정 도서들 가운데 국제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특히 많았는데 중미 관계, 중국정치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 모색 등의 서적들이 돋보였다. 독자들의 관심과 탐독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독자들과의 입장에서 도서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서는 인류의 유일한 창조물이며 자산이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오늘 논의된 도서들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달라진 환경에 적절한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 중국 이슈, 재난관리, 아시아 등 현재 중요시되는 주제가 많이 있었으며, 한정된 개수의 우수 도서를 추천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회의를 통해 잘 결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 상정된 많은 도서들이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통찰력 있고 독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합의를 통하여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학문적 기여가 높은 도서들을 추천하려고 노력하였다.

○ 분 과 : 순수과학

○ 상정 도서들은 과학과 수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과학에 대한 접근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들이다. 특히, 출품된 도서들은 과학과 수학의 순수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예술, 사회, 문화, 환경, 자연 등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현상들을 수학과 과학의 체계와 분석 방법을 결합하여, 보다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려는 내용을 다양하게 다른 수준 높은 학술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공분야의 학문적 경향과 발전을 반영하여 이들 특성에서 특히 돋보이는 도서를 추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학술적으로 훌륭한 도서를 추천하여 각계에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상정 도서는 총 101권의 기초과학 도서로 수학, 통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의 전 방면에 대해 이론적인 새로운 내용을 정립, 우리나라에 특화된 동식물 및 환경 관련 분석, 또는 학부 수준에서 효과적인 지식 전수를 위한 교재 그리고 과학의 역사와 철학 등에 대한 사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독자를 대상으로 기초과학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의 저명한 저술의 번역 작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할 만하나, 대학 수준을 뛰어넘는 순수과학 분야의 저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독창적이고 주옥같은 좋은 책을 추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

○ 순수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 전문성이 돋보이는 도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연구자들이 직접 집필한 높은 수준의 과학 도서들이 많이 있었으며, 추천된 모든 도서들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반에 걸쳐 기본 개념부터 최신 연구 동향까지 넓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 분 과 : 기술과학

○ 이번에 세종도서 추천 시 단순하게 문제풀이식이나 사례들의 나열 등을 기술하거나 기존에 출판된 도서와 유사한 내용들의 도서는 제외하고, 기존 도서들과 달리 공학적 접근을 달리하거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 분쟁, 지하공간 활용, 건설사고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도서와 도시재생 및 도시공간 활용에 대한 저자들의 개성적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한 도서들을 2차 회의에 상정하도

록 하였다. 상정된 도서들은 학교에서 수업의 주교재와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을 설명하여 건설안전 향상에 필요한 도서들이다.

○ 상정 도서들은 건축/토목의 기술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지반공학부터 도시 그리고 불교철학에 관한 건축 도서까지 매우 다양했다. 기술적 도서들은 안전과 관련한 공학 도서가 많았으며,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도시와 관련된 도서들이 특히 많았다. 요즘 이슈가 되는 건설안전 문제나 코로나를 겪고 도시의 이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도서들이 많이 선보였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 21세기에 건축과 토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도서들도 돋보였다. 그러나 책들의 편집 수준이나 기획 수준은 차이가 많았다. 상정된 책들 중에 학술적 가치와 책으로써 완성도가 높은 도서는 많지 않아서 아쉬운 점도 있다. 더 수준 높은 책들이 발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최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주제들, 가령 인공지능, 전기차, 드론, 제조혁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다룬 도서들이 많이 상정되었다. 학술서적으로서 완성도가 높은 도서들을 추천하였다. 그중에는 일반인이 교양서로 읽을 수 있는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저술된 도서들이 돋보인다.

○ 상정 도서들은 기계 공학, 화학 공학과 관련한 전문 도서뿐만 아니라 산업 공학, 환경 공학, 농화학 등 다양한 전문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교양 도서에 가까운 서적들도 총망라되어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상정 도서들의 주제가 기존의 각 학문 분야에 대한 전공 도서 성격에서 벗어나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예를 들어 친환경 자동차, 환경영향평가, 지구 온난화 등)과의 접점을 갖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관련 학회에서 전문가 그룹을 모집하여 소주제별로 원고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인 도서들이 다수 상정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각 학회의 존재 이유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주제들이 일반인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이므로 수준별로 도서를 준비하여 발간하고 편집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가독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 상정 도서들은 최근 전기/전자/컴퓨터 분야의 발전상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가능하면 다양한 최신 분야를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도서를 포함하여 추천하려고 노력하였다.

○ 최근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및 기술 분야가 활기를 띠고 있어, 반

도체 분야에 대한 도서가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습니다. 또한, 챗 GPT와 같은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AI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도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출판된 도서들과 유사한 내용만 담고 있는 도서들은 제외하고,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분야의 대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 추천도서들은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로 판단됩니다. 이에 학문적으로 우수하며 폭넓은 관심사를 가진 독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상정 도서들은 전문 학술서적으로서의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으며, 개별 전문 분야의 지식을 깊고 자세하게 서술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의학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최신 의학 지견을 전달하는 주제의 도서들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전문적인 학술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정보전달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책들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학술서적으로서의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편집하여 가독성 있게 전달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돋보였다.

○ 해부생리학에서부터 임상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학이지만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전문성의 깊이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 훌륭한 저술이고 그 왕성한 활동에 경의를 포함합니다. 또한 도서의 편집과 디자인이 이제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은 교재로서의 특징을 가지기도 했고, 어떤 책은 의사와 일반인들이 소양으로 같이 읽을 수 있는 책, 어떤 책은 매우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특정 전문가 집단에 필요한 저작물이 있어, 그중에 선뜻 몇 권을 추천하는데 부담감이 있으나, 창의성과 시의성 있는 도서 그리고 독자 친화적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도서를 추천하였습니다.

○ 인구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의학서적이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병과 관련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에 해당하는 서적의 발간이 눈에 띄는 동시에, 일견 독자층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특이적인 분야에 대한 서적도 여럿 확인할 수 있어 의학서적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정확하고 충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적을 우선하였으며, 다양한 독자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하고 의학계에서 최신 경향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소개 서적을 포함하여 추천하고자 노력하였다.

○ 상정 도서들은 보건의학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기획과 편집을 통해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의학 전문가부터 비전공자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의 건강 이슈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응용 가능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상정 도서들은 신뢰할 수 있는 지식과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 추천도서들은 간호학, 한의학, 영양학, 치과학, 운동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다. 각 의학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도서도 추천하였으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인 관심 분야에 관한 도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추천도서가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상정 도서들은 최근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보건 의료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대 의학이 보여주는 다양한 고민과 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의료통계, 빅 데이터가 접목되는 의료환경은 정밀의학을 통하여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였으며, 그에 따른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화와 노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은 과거에 치료하기 힘들었던 유전질환과 정신질환 등 여러 난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예방의학과 간호보건학의 체계화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국민건강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능의학과 현대한의학, 운동요법 등은 아직까지 현대 의학이 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상정 도서들은 보건의학 분야의 도서로서 최근 감염병과 보건 의료현장의 요구와 이슈 확대에 관한 도서들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와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대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주제와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재 중심의 개정판이 다수이고, 번역서 등이 교재 특성상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 과학적 글쓰기로 대중성과 가독성을 갖춘 도서가 필요한 점이 아쉽습니다. 학술 분야의 전문 서적만이 아닌 건강과 안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려하여 다양한 통합 도서들이 출판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종도서의 확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로운 도서들이 시대를 새롭게 조명하고 현장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됨을 도서 추천 과정에서 또한 배우고 자극이 많이 됩니다.

○ 외모 관리, 캐릭터 디자인, 미세플라스틱, 커피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학술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일을 하면서 알음알음 전달되었던 직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식체계를 정립한 새로운 학술서

가 쏟아지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다른 한편, 한국의 음식, 의복, 술 등 한국적인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 상정 도서들은 1) 최근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인 우리 술을 포함한 K-문화, K-푸드의 글로벌 식품 산업에서의 역할 및 음식 문화 동향을 폭넓게 담고 있으며, 2) 최근 자주 대두되는 기후변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도서들(환경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을 담고 있고, 3)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 서적(피부과학, 식품공학, 캐릭터 디자인 등)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본 상정 도서들은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일부 딱딱한 전문 서적의 기능을 포함하면서도 재미있는 사례들을 포함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를 보유하고 있다.

○ 분 과 : 예술

○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들이었다. 각 분야의 최신 연구부터 핵심 문헌의 번역서, 사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서술까지 모든 면에서 미래가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 상정 도서들은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영화, 연극,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의 이슈들을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화 분야의 통사적 연구와 학술적 논의들, 연극 분야의 실제적인 연기학 논의들, 음악 분야의 상호텍스트성과 창의적 융합, 미술 분야의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논의들, 무용과 체육 분야의 정신/육체와 사회적 의미 등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시의성 있는 저서들이 돋보였다. 이러한 저서들은 예술 분야에서 시의성, 완결성, 예술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추천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저서들을 통해 창작 활성화를 유도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학술 저서의 출판지원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가치를 보여준다.

○ 상정 도서들은 음악, 미술, 디자인, 영화, 연극, 무용, 체육 등의 매우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요즘 시대에 적합한 다각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위한 관점과 이론적인 부분만이 아닌 실제적인 부분도 저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꿔서 예전의 책들에서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입체화되고 다양해져 가는 방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상정 도서들을 통해 예술에 대한 시각과 관심사 들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 예술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미술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문화 현상에 힘입어 도서들의 범위가 확장되고, 전문 서적의 비중 또한 확대되는 것을 실감했다. 추천기준은 첫 번째로 국내 저자의 창작 도서 중심으로 추천했으며, 두 번째로는 가급적 많은 출판사에 기회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지명도 보다는 학술 도서의 가치가 높고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주제를 충실히 전달한 도서, 기존 학문을 넘어 새로운 담론을 창출한 도서, 그리고 새로운 학문적 이론이나 방법론을 제시한 도서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적들로 인해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추천 회의였다. 이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지원 사업을 통해 학술 도서의 보급이 확대되고 독서문화가 향상되며 지식 기반 사회의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

○ 분 과 : 언어

○ 이번 추천에 참여하면서 언어학 분야에 다양한 도서를 만날 수 있었고,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확장되어가고 변화해가는 언어학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의학, 공학, 음식, 다문화, 인류학, 자연학, 법학,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언어학의 연구가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특히 학문적인 융합과 더불어 순수학문, 역사, 철학 등의 전통적 언어학 분야의 지속되는 학문적 깊이의 도서들도 여러권 눈에 띄었다. 추천할만한 좋은 도서들을 만나고 또한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추천도서들은 완성도, 도전성, 참신성 면에서 돋보이는 도서들이다. 특히 언어 분야의 서적들인 만큼 언어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적 시도를 통해서 참신성과 도전성을 강화시킨 도서들이 추천도서에 많이 들어있다. 추천도서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변화성을 잘 반영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도서들은 언어와 언어학 분야를 넘어서 학문의 융복합적 시도가 점점 커가는 현재의 경향을 선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이번에 상정된 도서들은 훈민정음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주는 저술들과 함께, 기본기에 충실한 문법, 담화, 텍스트 관련 논의 저술 및 어휘(사전류)와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스웨덴어 등 언어의 외연을 넓혀주는 탁월한 저술들도 보였다. 특히 이번

에 상정된 도서들 중 언어 다양성 측면에서 넓고 깊은 접근을 보이는 저술들이 부각되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고 성장하는지를 다루는 시각이 두드러졌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번 추천은 언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도서라는 형식성과 효과성을 잘 고려하면서 창의적으로 반영되어 기술된 완성성 높은 저서들을 추천하고자 노력하였다.

○ 분 과 : 문학

○ 코로나 이후 현대인들이 갖는 불안감을 읽어낼 수 있는 책들이 여럿 있었다. 장소감이나 ‘헤테로토피아’를 소재로 한 책들이 그렇다. 한국 고전 문학 연구에서는 ‘노래’라 할 수 있는 시가 연구에서 실험적이면서 정치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글로벌 콘텐츠의 시대에 한국적 정체성과 감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토리, 캐릭터, 구성 요소에 활용할 수 있는 작업들도 여럿 보였다. 창작자들은 물론 문화소비자들이 환영할만한 흥미로운 독서물들이다.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을 묶어내는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학 전문 편집자들의 기획력이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 검토한 도서들은 오늘날 문학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문학과 문학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관점 등을 잘 보여주었다. 문학을 통해 역사적 공간의 양상을 탐색하거나 전통적으로 학술 담론의 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개념을 학술적으로 의미화하여 연구 방법으로 취하는 방식이 흥미로웠다. 또 동시와 아동 잡지 등 아동 문학에 관한 관심도 비교적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연구 대상이나 방법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을 추천하여 오늘날 한국문학 연구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 추천도서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친 끈기 있는 노력이 담긴 저술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함께 현대의 실용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의성과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의 독자가 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문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문학이 시대를 뛰어넘어 독자들에게 읽혀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저술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에 상정된 저서들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과 징후를 문학적, 학문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치열한 과정의 산물로 판단된다. 우리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은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부터 기원하는바, 저서들의 수

준과 논의의 질적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관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책 읽기의 관심이 줄어들고 출판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이 상존하는 현실임에도 의미 있는 작품과 저작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과제이기도 하며 미래 시대를 견인하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 상정 도서들은 최근 우리 학계의 관심사, 예를 들면 질병, 아동, 문학과 지리, 문학 교류, 문예이론 등으로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 여러 시도들은 모두 일정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한 우물을 판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존재하였고 고전이라 불릴만한 외국 서적에 대한 충실한 번역서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학과 다른 영역 간의 융합을 시도하는 시의성 있는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 상정 도서들은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과 통찰,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연구로 학술적 기여도가 크며, 무엇보다 사회 현상과 문학의 사유에 있어 기존의 논의와 차별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학술 연구자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만한 설득력과 가독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 분 과 : 역사/지리/관광

○ 추천도서들은 한국사 영역에서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다양한 시대를 망라하고 있으며, 왕실, 정치, 여성, 이혼, 노비, 선박, 벼루 등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탐구는 현재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이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졌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자들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물들을 도서로 발행하여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숨어있던 역사가 드러나고 생명력을 갖게 되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도서를 통해 익숙했던 역사 이해에 더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고,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 상정된 도서는 시기적으로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루어진 주제도 또한 정치, 사회경제, 문화, 대외교류, 생태환경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된 도서였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 인식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시각과 분석을 통해 역사 인식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연구서가 다수 있었고, 미시사, 생활사적인 관점에서 방대한 자료를 치밀하게 다루거나 그간 관심을 갖지 않

있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접근한 참신한 도서도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사 연구에서의 넓혀지고 있는 지평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정 도서들 가운데는 하나의 특정 개념이나 사태나 국면을 매개로 전 사회적 현상과 부면을 유기적으로 망라하여 조망하고 재현하려는 시각과 방법론을 취한 경우들이 매우 많았으며, 또한 그러한 저술들이 훌륭한 지적 성취를 거두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왕에 간과하거나 방기했던 요소들, 그리고 현 단계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새롭게 설명의 욕구가 팽만해져 가는 요소들에 대한 질문과 응답의 모색 시도도 적지 않았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인 경향이라고 여깁니다. 오직 더 많은 저술들이 추천되지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 상정 도서들은 정치사, 문화사, 경제사, 과학기술사 등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역사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현대사의 난민, 대청 국가 문제, 과학주의 담론과 젠더, 한국인의 태평양 인식, 한국인의 경제관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동안 완역되지 않았던 미국 학계의 한국전쟁 저서가 전체 번역되어 한국 역사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주는 번역서가 나온 것도 특기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연구 대상과 주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경향이 현재에도 진행 중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 전개를 시공간적으로 확대된 관점에서 조망하는 연구에서 특정 지역과 집단의 경험과 국민 또는 민족 등과 같은 거대 담론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완성도 높은 번역서와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한 자료집 등은 한국 역사 연구의 역량이 한층 더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학술서적은 연구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만큼 학술서적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상정 도서들은 최근 국내 독자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학계와 출판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상정된 도서들이 다루는 지역 범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세계사 영역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 편중되지 않아서 유럽사와 동아시아사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다루는 연구서들이 여럿 상정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번역서에 있어서도 연구서뿐만 아니라 1차 사료의 역주 성과로서, 5권으로 번역이 일단락된 라시드 앗 딘의 집사와 일본 후기 등이 뽑힌다. 다만 올해 상정된 서적 가운데 번역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본 추천대상인 세계사/지리의 영역에서 아직 국내 연구자들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리 분야에서는 상정된 도서가 세계사 분야에 비해 적은 점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지

리학계와 출판계에서도 좋은 기획의 출판물들이 상재되기를 기대한다.

○ 전체적으로 인문학적 연구환경이 어려워지는 속에서도, 좋은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 인식을 지역사, 지구사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경향은 작금의 세계사적인 변동 및 한국의 여러 상황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의 결과로 해석되며, 또 향후 더욱 지속되고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추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역사(동양사, 서양사), 지리, 관광 등 다양한 주제가 얽혀있고, 또 역사라 하더라도 동서양의 고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포괄할 영역이 넓고, 내용적으로는 역사 이론, 역사 교육, 과학사 등 영역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서 추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추천 영역이 조금 세분화 되고, 특히 번역과 역주는 구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 중국과 서양의 역사 연구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몸젠의 로마사와 같이 고전이 번역되었고, 중국사의 연구에 필수적인 영애승람과 같은 작품도 번역되었다. 번역서가 저술사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 연구자의 자주적인 창작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이 아쉽다. 번역서를 20% 내로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좋은 번역서들이 많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대한 저작들이 발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주변부로 여겨졌던 지역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작품들이라고 생각된다.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2차 회의

- 일 시 : 2023년 11월 1일(수) * 현장 회의 기준
- 장 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 추천위원 : 총 10명
- 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추천대상, 추천분과, 추천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학술부문 1차 회의 추천 내역 보고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중)
51	37	32	176	19	85	24	17	38	48	527

- 1차 추천도서 검토(추천 제한/제외 사항 등 확인, 최종 추천도서 합의)
- 세종도서 학술부문 2차 회의 및 추천도서 확정(390종)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중)
39	27	23	132	14	62	18	13	27	35	390

붙임 :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2차 회의 추천 총평. 끝.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2차 회의 추천 총평

올해 세종도서 학술부문에서는 502개 출판사에서 제출한 2,896종의 도서 중에서 390종의 도서를 추천하였다. 총 10개 분과, 80명의 추천위원이 학술성, 대중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검토하고 추천한 결과이다.

추천 대상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 있게 해석하고, 나아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우수한 도서와 번역서들이 많았다. 사실 “인공지능”, “인구 붕괴”,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 그리고 세계적 “신냉전” 등으로 회자되고 있는 현상들은 기왕의 패러다임으로는 이해 또는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문화(한류)”의 세계적인 확장 현상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는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추천된 도서들은 이러한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새로운 이해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 학술적 작업의 결과였다. 특히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역과 글로벌 등 확대된 공간에서 이해하는 한편, 문명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를 전망하려는 점이 눈에 띈다.

최종 추천된 양서들이 연구자와 작가, 독자들에게 널리 읽혀, 우리 사회에 더욱 풍부한 담론과 사유 체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본 사업이 출판산업의 활성화와 국민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본유의 의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총류]

이번 총류 분과 도서들은 최근 컴퓨터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최근 기술인 “챗 GPT”, “메타러닝”,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을 다루는 도서가 포함되었다. 또한 총류 분과는 교양 및 개론 수준의 다양한 학문적 관심사(죽음, 의료, 출판문화, 독서치료 등)를 다루는 도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2023년에 추천된 세종도서 총류 분과의 도서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도서를 커버하여 독자들의 총류에 대한 폭넓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철학/심리학/윤리학]

철학/심리학/윤리학 분과는 주제 의식의 일관성, 독창적 주제, 창의성 있는 서술, 그리고 주제의 시대적 적절성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회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존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을 단순 연구하거나 번역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반성적 교훈을 제공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통찰을 제공하는 저술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서양 철학자의 연구를 단순 번역한 서적이 많아서 회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학계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다만 국내 학계에서 연구가 소홀했거나 미진했던 영역에 대한 번역서가 많이 출간되어 학계 연구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이에 의한 혼란을 해명하기 위한 논의를 다룬 저술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세계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위세를 떨치고 있다. 출판계도 이런 위상에 걸맞은 창조적이며 선도적인 저술이 다양하게 출판되어, 한국인의 관점에서 세계의 학술과 사상 그리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이 분과에서 추천된 도서들이 철학/심리학/윤리학의 각각의 전통적인 학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영역으로 주제를 확장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더하여 선도적인 출판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종교]

종교 분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학술서로서의 가치를 판단하였다. 저자의 창의적인 주장이 어떻게 담겼는지 각 도서의 ‘참신성’ 과 ‘완성도’ 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판 도서들과 개론서들이 다수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각 도서의 ‘가독성’ 을 고려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좁은 주제보다는 많은 독자가 기대되는 도서를 높이 평가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학술성을 꼼꼼하게 고려하였다. 올해 추천된 종교 분과 도서들은 이러한 요소 전체 또는 일부를 갖추

고 있다. 이 밖에도 세부 분야별로 고루 추천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에 따라 <기독교 세부 분과>의 경우 성서신학, 이론신학, 실천신학 도서들이 골고루 추천되었고, <불교/기타종교 세부 분과>의 경우, 불교, 신종교, 종교학 관련 도서들이 골고루 추천되었다. 또한 우리 학계의 학술적 연구를 자극하고 지지하려는 의도에서 번역서보다는 저술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학계에 꼭 필요한 원전 번역은 포함시켰다. 이에 그리스어 및 라틴어 원전(1차 문헌) 번역서로부터 최근의 학문/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도서까지 다양하게 추천되었다.

[사회과학]

2023년 세종도서에서 추천된 사회과학 분과 도서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빅 데이터, 인구 절벽, 도시재생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키워드들이다. 다른 분야보다도 사회의 변화에 민감한 사회과학 분과의 특성상, 진지한 성찰과 성실한 연구로 현시대를 진단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양서들이 추천되었다. 국내서들은 훨씬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으로 사회 현상에 접근하고자 한 점이 돋보였으며, 번역서들은 주목할 만한 서적을 발굴하여 우리말로도 손색 없이 읽힐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담겨있었다. 디지털기기의 파고에 밀려 독서와 사색이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간주되곤 한다. 추천된 양서들이 사회과학 분과의 연구자와 작가, 독자들에게 널리 읽혀 풍부한 담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순수과학]

올해 세종도서 순수과학 분과에는 수학과 과학의 전 분야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해를 보여주는 우수한 도서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양질의 학부 교육을 위해 국내에서 자체 제작된 교재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국내의 동식물과 자연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학술서 등도 흥미를 끌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독자를 대상으로 기초과학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의 저명 저서에 대한 번역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된 점은 매우 고무할 만하나 대학 교육 수준을 뛰어넘는 순수과학 분야의 저술은 많지 않아서 아쉬웠다. 세종도서 학술부문 지원 사업이 독창적이고 우수한 저술 지원을 통해 순수과학 분야의 학문 업적을 집대성하고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여 국내 기초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기술과학]

올해 추천된 기술과학 분과 도서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에 관심이 있는 각 분야의 이슈를 반영하는 주제들이 추천되었다. 각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도시재

생, 인공지능, 친환경 등 현대사회의 발전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 관련 서적과 감염병과 고령화 사회 등 현대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서들이 포함되었다. 과학 서적은 전문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독성 있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추천도서들은 전문 학술서적으로서 학문적 가치를 가지는 도서에서부터 일반인들도 쉽게 전문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에 중점을 둔 책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정보가 너무 많이 유통되고 부정확한 지식들이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현실에서 이번 추천도서들이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예술]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예술 분과는 학술 도서의 가치가 높은 도서,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 주제를 충분히 전달한 도서, 기존 학문을 넘어 새로운 담론을 창출한 도서, 새로운 학문적 이론이나 방법론을 제시한 도서를 추천하였다. 추천도서들은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영화, 연극,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의 이슈들을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 요즘 시대에 적합한 다각적이고 유연한 사고, 이론적인 실천과 실제적인 실천의 결합, 입체화되고 다양해지는 방식, 예술에 대한 인식의 확대, 전문 서적의 비중 확대 등을 예술에 대한 시각과 관심사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음악 분야는 상호텍스트성과 창의적 융합, 이론과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며, 영화 분야는 통사적 연구와 학술적 논의들, 철학과 음악의 융복합을 보여주며, 미술 분야는 역사적이고 철학적 논의들, 역사와 혁신, 민중과 사상의 융합을 보여주며, 연극 분야는 배우와 연기의 실천적 전략과 방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무용/체육 분야는 티칭 전략과 수련 방법,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라는 실천적 특징을 보여준다. 예술 분과 추천도서들을 통해 창작 활성화를 유도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학술 저서의 출판지원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가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추천도서들을 통해 학술 도서의 보급이 확대되고 독서문화가 향상되며 지식 기반 사회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된다.

[언어]

한국어와 영어, 유럽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서를 접할 수 있었다. 그중 올해는 한국어를 중심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술서가 주종을 이루었다. 대상 언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서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연구 주제를 보면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자들이 접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언어학 또는 그와 관련된 연구 영역에서 벗어나 좀 더 특화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책들이 많이 발견되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어학사, 국어 표기 규

정, 문자와 언어 등 언어 연구 분야에서 일반적인 주제의 학술서도 있었지만, 서양 학술용어, 언어의 기원, 방송언어, 여성 구사어, 의학과 언어, 이름과 언어, 특정 직업이나 분야 속에서의 언어, 다중언어 등 세부적이고 특화된 주제의 학술서들이 더 많이 보였다. 이런 특징들은 사회의 세분화와 함께 언어도 더욱 넓고 세분화 되어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향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어 영역에서도 이런 흐름을 잘 반영하는 좋은 학술서들이 지속적으로 출판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학]

회의를 통해 상정된 한국문학 도서들은 현대 문학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문학과 문학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관점, 그 깊이를 잘 보여준다. 도서의 대부분은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더불어 현대의 실용적 요구에 부응하며 시의성을 결합한 실험적 시도가 눈에 띄며, 문학을 통해 역사적 공간의 양상을 탐색하거나 글로벌 콘텐츠 시대에 한국적 정체성과 감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들도 다수 있었다. 전통적인 학술 담론의 장에 대한 진입을 가로막던 난해한 개념을 학술적으로 의미화하는 작업과 아동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우리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논의, 각 분야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 노력, 의미 있는 작품 저작과 발굴, 새로운 문학적 연구 시도는 오늘날 한국문학 연구와 창작의 스펙트럼을 잘 보여준다. 한국문학 도서와 마찬가지로 해외 문학 도서들도 현시대의 관심사인 질병, 아동, 문학, 지리, 문학 교류와 문예이론 등을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참신한 시각과 통찰을 보여준다. 문학 연구가의 오랜 기간 누적된 연구와 성과가 녹아 있는 수준 높은 다수의 도서는 그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며, 문학과 다른 영역 간의 융합을 시도하는 다양한 흥미로운 연구와 실험적 논의는 기존 논의와 차별되는 참신한 시각을 제시하면서 학술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설득력과 가독성을 갖추고 있다. 한국문학과 해외 문학 모두 높은 학술성과 새로운 융합 시도, 학술적 성과를 흥미롭게 재구성하여 일반 독자를 유도한 점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가 보인다.

[역사/지리/관광]

본 분과에서는 총 263종의 도서 중에서 35종을 추천하였다. 분과 자체가 다양한 분과 학문(역사(한국사/세계사), 지리, 관광)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역사학 관련 서적이 많았다. 물론 역사학(지리학도 그러하지만) 자체가 통합적 성격이 강한 만큼, 후보로 추천된 서적들이 포괄하는 주제는 시공간적으로 더욱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 방법도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사에서는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난민, 생태환경, 과학주의 담론, 젠

더, 한국인의 공간인식과 경제관념 등을 심도 있게 다룬 성과들이 눈에 띄었다. 또 연구 시각 역시 한국의 역사를 지역과 글로벌 등 확대된 공간에서 이해하려는 시각, 단편적인 국면이 아닌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체계와 맥락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매우 긍정적 조짐이라 할 수 있다. 세계사와 지리 영역 역시 지역적으로 유럽과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과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주변화되었던 주제와 지역에 대한 연구 경향도 뚜렷하게 증대하였는데, 이 역시 작금의 세계사적인 변동과 한국의 여러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 보려는 인문학적 사유의 결과로 보이며 이후 더욱 지속적이고,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번역과 역주 작업의 성과도 다수 출품되었다. 고전의 번역과 역주는 인문학적 사유의 기초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논할 필요가 없지만 우수한 성과들이 많이 추천되지 못했다. 이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